

# E1, LPG 공급가격 55원 인상

7월분 kg당 5.07% 올려 1139원 ... 환율 변동 감안하면 100원

LPG(액화석유가스) 수입·판매기업인 E1이 7월 공급가격을 인상했다.

E1은 각 충전소에 공급하는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7월 가격을 kg당 55원(5.07%) 올린 1139원으로 책정했다고 6월30일 발표했다.

또 자동차용 부탄가스 가격을 kg당 1523원(리터당 889.43원)으로 45원(3.04%) 인상했다.

E1 관계자는 “LPG 국제가격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소폭 내렸으나 6월 평균 환율이 달러당 1200원대를 웃돌아 공급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율 변동을 감안하면 kg에 100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6월 LPG 공급가격을 동결했던 SK가스 등 나머지도 E1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릴 전망이다.

LPG 수입기업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Aramco가 LPG 국제가격을 통보하면 매월 말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 달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01>